

의 승인을 받았다.<sup>140</sup> 이러한 신심 행위는 16세기부터 이미 원시적인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의 형태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신심 행위의 근본적인 통찰은 시므온의 예언에서부터(루가 2, 34-35 참조) 성자의 죽음과 매장까지, 신앙과 고통의 여정인 성모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 여정은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7가지 고통'에 맞춰 7처로 되어 있다.

137. 이 신심 행위는 사순 시기의 고유한 몇몇 주제들과 잘 조화를 이룬다. 성모님의 고통은 당신 아드님께서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이므로(요한 1, 11; 루가 2, 1-7; 2, 34-35; 4, 28-29; 마태 26, 47-56; 사도 12, 1-5 참조), 어머니의 길은 고난 받는 종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와 한결같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이사 52, 13-53, 12 참조). 어머니의 길은 교회의 신비와도 연결된다. 어머니의 길의 각 기도처는 교회에 앞서 동정 마리아께서 보여 주신 신앙과 고통의 여정이며, 교회는 세상 끝까지 그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어머니의 길을 가장 숭고하게 나타내는 것은 피에타상으로, 이것은 중세기 이래 그리스도교 예술에 영감을 주는 무한한 원천이 되어 왔다.

## 성주간

138. “교회는 성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하여 지상 생활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이룩하신 구

140. 레오 13세, 교황 교서 *Deipare Perdolentis*, Leonis XIII Pontificis Maximi Acta, III, Typographia Vaticana, 1884, 220-222면 참조.

원의 신비들을 거행한다.”<sup>141</sup>

신자들은 성주간 예식에 적극 참여한다. 성주간 예식의 대부분이 대중 신심에 기원을 둔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를 거치면서 성주간 예식 안에 대비되는 형태의 예식이 생겨나, 결국 각각 고유한 특성을 띤 두 체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는 순전히 전례적이며, 다른 하나는 독특한 신심 행위, 특히 행렬의 특성을 띤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예식 형태는 전례 거행과 신심 행위의 올바른 조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실제로 신자들이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대중 신심 표현에 기울이는 주의와 관심은 대중 신심이 뒷받침하는 전례 행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 성지 주일

### 종려나무와 올리브 나뭇가지와 그 외 나뭇가지들

139. 성주간은 그리스도의 왕다운 위엄과 그분의 수난 선포를 결합시키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시작한다.<sup>142</sup>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행렬은 기쁨이 넘치는 민중적인 특성을 띤다. 신자들은 성지 주일에 축복을 받은 종려나무나 올리브 나뭇가지, 또는 그 외 다른 푸른 나뭇가지들을 대개 가정이나 일터에 간직한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러한 예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141. 교황청 경신성사성,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Lettera Circolare sulla Preparazione e Celebrazione delle Feste Pasquali*), 1988 1. 16., 27항.

142. 같은 곳, 28항.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신자들에게 종려나무나 올리브 나뭇가지를 받는 것보다는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적절하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종려나무나 올리브 나뭇가지를 부적으로 간직해서는 안 되며, 악령을 추방하거나 악령들이 야외나 가정에서 해를 입히는 것을 막고자 치료나 수술의 목적으로 간직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미신 행태를 떨 수 있기 때문이다.

종려나무와 올리브 나뭇가지는 구세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승리에 대한 신앙의 증거로 가정에 간직한다.

## 파스카 성삼일

140. 해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지극히 거룩한 성삼일”<sup>143</sup>이루신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들을 거행한다.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예수 부활 대축일 저녁기도까지이며 “신앙이신 그리스도와 긴밀히 일치하여”<sup>144</sup> 거행된다.

## 성목요일

### 수난 감실 조배

141. 대중 신심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 이어서 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조배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sup>145</sup> 그 유례를 확

143. 성 아우구스티노, 「서간집」(*Epistula*), 55, 24, *CSEL* 34/2, Vindobonae, 1895년, 195면; 교황청 예부성성, 일반 교령 *Maxima Redemptionis Nostrae Mystera*, AAS 47(1995), 338면 참조.

144.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38항.

실히 알 수 없는 오랜 역사적 과정 때문에, 성체를 모셔 두는 장소는 전통적으로 ‘거룩한 무덤’으로 일컬어져 왔다. 신자들은 수난 감실 앞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그곳에서 약 40시간을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 경배드린다.

신자들에게 성체 안치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체를 옮겨 모시는 성금요일의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나 병자들의 노자성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보존하는 것이다.<sup>146</sup> 또한 예수님께서 이날 세우신 놀라운 성사를 침묵 중에 장시간 흠송하도록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난 감실에 대하여 ‘무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무덤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장식을 해서도 안 된다. 수난 감실을 무덤이나 묘비의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체는 성합에 보존하여야 하며 성광에 전시해서는 안 된다.<sup>147</sup>

성목요일의 자정이 지나면 외적인 장엄함 없이 성체 조배를 한다. 주님 수난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sup>148</sup>

## 성금요일

### 성금요일 행렬

142. 교회는 성금요일에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

145. 성금요일에 주님의 수난을 거행하지 않는 성당에서는 거룩한 성체를 옮겨 모시는 행렬을 하지 않는다(「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54항 참조).

146.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55항; 교황청 예부성성,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rium*), 49항, AAS 59(1967), 566-567면 참조.

147.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55항 참조.

148. 같은 곳, 56항 참조.

음을 기념한다. 교회는 오후의 전례 행위를 통해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를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열구리의 거룩한 상처에서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기념한다(요한 19:34 참조).<sup>149</sup>

십자가의 길과 같은 성금요일의 다양한 대중 신심 형태와 더불어서, 이 수난 행렬은 물론 가장 중요하다. 수난 행렬은, 대중 신심의 형태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아직 아무도 장사지낸 일이 없는 무덤”(루가 23:53)에 모셨던 친구들과 제자들의 소규모 행렬을 나타낸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행렬은 보통 엄숙한 침묵과 기도, 주님을 장사지내는 의미를 깊이 통찰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143.** 그러나 이러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이 시간적으로나 신자들을 소집하는 방법 면에서 성금요일의 전례 거행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금요일의 사목 계획에서는 장엄 전례 행위에 일차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두어야 하며, 신자들은 다른 어떤 신심 실천도 이러한 전례 거행을 객관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끝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행렬과 성금요일의 장엄 전례 행위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예식이 왜곡되게 뒤섞일 수 있

149. 전례 현장, 5항; 성 아우구스티노, 「시편 상해」(*Ennaratio in Psalmum*), 138, 2, 『라틴 그리스도교 문학 전집』(*CCL*) 40, Turnholt, 1956, 1991년.

기 때문이다.

## 수난 연극

**144.** 여러 나라에서 성주간 동안에 특히 성금요일에 수난 연극을 한다. 이것은 흔히 신심 행위로 여겨질 만한 ‘성극’이다. 실제로 이러한 성극은 거룩한 전례에 그 기원을 둔다. 수도승들의 성가대에서 시작된 이러한 성극 가운데 일부는 말하자면 더욱더 극화되어 교회 밖에서도 상연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심회에서 주님 수난 공연의 책임을 맡아서,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교 생활을 계현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아 왔다. 그러한 공연에서 배우와 관객은 신앙과 참된 신심의 분위기에 몰입한다. 주님의 수난 연극이 진실하고 대가 없는 신심의 이러한 순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신심 표현이기보다는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춘 통속적인 작품의 특징을 띠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극’과 관련하여, 신자들에게 기념 ‘공연’과 회상이나 수난의 구속 사건의 신비로운 현존인 ‘전례 행위’의 차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참회 행위는 권장되지 않는다.

## 교통의 성모님

**145.**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고통 기념”<sup>150</sup>은 교리적으로나 사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150.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72항.

야 한다. 대중 신심은 복음서 이야기를 따라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구원의 수난에 동참하셨음을 강조하며(요한 19, 25-27; 루가 2, 34 이하 참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신심 행위들을 탄생시켰다.

- 성모님의 탄식(Planctus Mariae). 성모님의 깊은 슬픔을 표현한다. 이러한 슬픔은 흔히 성모님께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선하신 당신 아드님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잘못과 인류의 죄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내용의 수준 높은 글이나 음악 작품으로 표현된다.

- 비탄의 시간(Ora della Desolata). 신자들은 당신 외아드님의 죽음에 낙담하시고 몹시 슬퍼하시는 주님의 어머니와 함께 경건하게 밤을 지낸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계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슬픔이 성모님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자들은 성모님을 통하여 수세기에 걸쳐 자식을 잃는 슬픔을 맛보았던 모든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 이러한 신심 행위는,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El Pesame라고 불리는데, 슬퍼하는 어머니 앞에서 감정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과 거기에 동참하신 성모님의 위대함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성토요일

146. “성토요일에 교회는 주님의 무덤에 머물면서 그분의 수난과 죽음과 저승에 가심을 묵상하고, 기도와 단식 중에 그분의 부활을 기다린다.”<sup>151)</sup>

151.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73항.

대중 신심은 성토요일의 고유한 특성에 둔감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주님의 부활을 앞당겨 경축하였던 이전의 축제 관습이나 관행들은 부활 성야와 예수 부활 대축일에 유보되어야 한다.

## 성모 시간경(Ora della Madre)

147. 전통에 따라, 성모님께서서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신다. 성모님께서서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수집품”(credentium collectio universa)<sup>152)</sup>이다. 따라서 주님의 무덤 가까이에서 기다리시고,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나타나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신랑의 부활 경축을 기다리며 신랑의 무덤에서 밤을 지새는 순결한 교회의 표상이다.

성모 시간경이라는 신심 행위는 동정 마리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통찰로써 고무된다. 당신 아드님의 시신이 아직 무덤에 있고 그 영혼이 죽은 이들의 세계로 내려가 그 조상들에게 어둠의 그늘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는 동안, 교회를 예표하시고 대표하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신앙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당신 아드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다리신다.

## 예수 부활 대축일

148. 전례 주년의 가장 큰 대축일인 예수 부활 대축일은 흔히 여러 가지 대중 신심의 표현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에서 나오는 신적 능력을 선포하는

152. 데우츠의 루페르투스, *De Glorificatione Trinitatis* VIII, 13, 『라틴 교부 총서』(PL) 169, 155D.

예배의 표현들이다.

###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를 만나심

149.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관계, 곧 수난과 죽음, 부활의 기쁨에서 어떠한 불변성을 직관한다.

하느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당신 아드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전례의 단언은<sup>153</sup>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를 만나심에 대한 신심 행위로 해석되고 재현되어 왔다. 예수 부활 대축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두 무리의 행렬 가운데 한 무리는 고통의 성모님상을 들고, 다른 한 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상을 들고 서로 만남으로써, 성모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신 첫 사람이심을 보여 준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행렬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것을 이 신심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신심 행위의 준수를 예수 부활 대축일의 전례 거행보다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되며, 전례 표현과 신심 행위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뒤섞어서도 안 된다.<sup>154</sup>

### 식탁의 축복

150. 부활 전례는 새로움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찬다. 부활 시기는 복반구의 봄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은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불과 물도 새로워진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 또한 가능

하다면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의 집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찬례도 새로워진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시작하신 새로운 삶의 표지요 실재이다.

예수 부활 대축일과 관련된 신심 행위 가운데 언급해야 할 것은 생명의 상징인 달걀의 전통적 축복과 식탁의 축복이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상적인 습관으로 장려되어야 하는<sup>155</sup> 이 식탁의 축복은 부활 주일에 특히 중요하다. 가장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부활 성야를 마치고 가져온 부활 성수로 축제 음식을 축복한다.

###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를 방문하심

151. 부활 성야를 마치며, 또는 예수 부활 대축일 제2저녁기도에 이어, 간단한 신심 행위를 하는 지역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부활의 기쁨에 대한 표시로 꽃을 축복해서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관을 쓰신 고통의 성모님상을 들고 와서 성모 찬미가(Regina Coeli)를 노래하는 이들도 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 앞에서 복되신 동정녀와 함께 슬픔에 잠겼던 신자들은 이제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다.

이 신심 행위가 전례 행위에 뒤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파스카 신비의 내용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중 신심이 성자의 구원 활동에 함께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이해하는 방식의 훌륭한 본보기이다.

## 부활 시기

### 연례 가정 축복

152. 부활 시기 동안이나 연중 다른 시기에 가정에서는

153. 『성무일도』, 성모 공통, 제2저녁기도, 마침기도; 『성모 미사 경본』(Collectio Missarum de Beata Maria Virgine), I, 15, 주님 부활 때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감사송 참조.

154. 본문 143항 참조.

155. 『축복 예식서』, “식탁의 축복”, 782-784, 806-807 참조.

연례 가정 축복을 한다. 이 사목 관습은 본당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들에게 적극 권장된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연례 가정 축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 관습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하느님께서 언제나 현존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연례 가정 축복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따라 생활하도록 촉구하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가정 교회’의 신비를 보존하고 장려하도록 권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sup>156</sup>

### 빛의 길 (Via Lucis)

**153.** 빛의 길이라 불리는 신심 행위가 나타나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역에 퍼졌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본따, 부활에서 승천까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목상하면서 행렬을 지어 나아간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고(요한 14, 26; 16, 13-15; 루카 24, 49 참조),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을 완성하시고, 교회의 성사적 교계적 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셨다.

신자들은 빛의 길을 통하여 신앙의 중심 사건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은총의 빛이 내뿜는 밝은 광채로 나아가는 파스카의 성사인 세례성사로 자신들이 제자가 된 것을 상기한다(골로 1, 13; 에페 5, 8).

수세기에 걸쳐 십자가의 길은 부활 사건의 제1단계인 수난에 신자들을 동참시켰고, 수난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에 의식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빛의 길은 복음서 본문에 충실하게 거행될 때 파스카 사건의 제2단계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자들의 생생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 빛으로”(per crucem ad lucem) 나아가는 빛의 길은 잠재적으로 훌륭한 신앙 교육이다. 빛의 길은 여정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하느님의 계획에서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공통의 체험을 통해, 인생의 참 목적이며 본질적으로 파스카의 가치들인 해방과 기쁨과 평화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 나아간다.

빛의 길은 흔히 절망과 허무주의,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신앙이 제시하는 희망과 확신에 열려 있는 ‘생명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잠재적인 자극제이다.

###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

**154.** 부활 팔일 축제와 관련하여, 2000년 4월 30일에 시성된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의 저서에 바탕을 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특별한 신심이 최근 몇 년 동안 발전하여 퍼져 나갔다. 이 신심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성령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쏟아 부어진 하느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불리는<sup>157)</sup> 부활 제2주일의 전례는 인간이 구세주의 자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자리이므로, 신자들에게 부활 주일의 전례 거행에 비추어 이 신심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실제로 “구세 사상으로나 종말론에서나 파스카의 그리스도야말로 자비의 완결된 강생이시며 자비의 산 표지이시다. 바로 그런 정신에서 부활절 전례는 우리 입술로 시편의 다음 구절을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시편 88 2(89 1)).<sup>158)</sup>

156. 『축복 예식서』, “연례 가정 방문과 축복”(Ordo benedictionis annuae familiarum in propriis domibus), 68-89 참조.

157. 교황청 경신성사성,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제정한 교령」, 2000. 5. 5. 참조.

158.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8항.

### 성령 강림 대축일 전 9일 기도

155. 신약성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제자들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고자”(루가 24,49) 고대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와 예수와 형제들도 함께 ……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사도 1,14). 신자들 사이에 널리 실천되는 성령 강림 대축일 전 9일 기도의 신심 행위는 이러한 구원 사건에 대한 기도와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이 9일 기도는 이미 미사 전례서와 성무일도, 특히 성령 강림 대축일의 제2저녁기도에 나타나 있다. 성서와 기도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협조자이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가능하면 성령 강림 대축일 전 9일 기도는 저녁기도의 장엄 거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9일 기도는 주님 승천 대축일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 밤기도 사이의 날들의 전례 주제를 성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기도 한다.<sup>159</sup>

## 성령 강림

### 성령 강림 대축일

156. 부활 시기는 부활 후 50일째인 성령 강림 대축일로

159.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Directoire Pour l'Application des Principes et des Normes sur l'Oecumenisme*), 1993.3.5., 110항, AAS 85(1993), 1084면 참조.

막을 내린다. 이날 교회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한다(사도 2,1-4 참조). 장시간 거행되는 전야 미사는 주교좌 성당과 일부 본당에서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전념하였던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드리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sup>160</sup>

성령 강림의 신비는 우리에게 기도와 선교 노력을 권고하며 “교회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신다는 변함 없는 표지”인 대중 신심을 밝혀 준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대중 신심을 가치 있게 하는 교회의 덕목들인 믿음과 바램과 사랑을 일깨워 주신다. 같은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문화와 관습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 주신다.”<sup>161</sup>

신자들은 특히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시작할 때에 또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령께 기도드리곤 한다. 신자들은 흔히 성령 강림 대축일 예식에서 가져온 기도문(“오소서, 성령님, 창조주님”(Veni Creator Spiritus), “오소서 성령님”(Veni Sancte Spiritus))이나<sup>162</sup> 짧은 청원 기도문을 사용한다(“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Emitte Spiritum tuum et creabuntur)). 묵주기도에서 영광의 신비 제3단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내리심을 묵상하도록 권고한다. 건진성사를 통하여 신자

160. 「파스카 축제 준비와 거행에 관한 회람」, 107항 참조; 성령 강림 대축일 밤기도의 형식과 성구, 기도문은 *Notitiae* 24(1988), 156-159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몇몇 『로마 미사 전례서』에도 이미 나와 있다.

161. 요한 바오로 2세, 칠레 라세레나의 말씀 전례 때 한 강론, 2항,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1(1987), 1078면.

162.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26항, 70-71면 참조.

들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슬기와 의견의 성령,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삶의 시련을 이겨 나가도록 도와주실 용기와 지식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자들은 또한 세례사를 통하여 그들의 몸이 존중받고 영광 받으셔야 할 성령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성령께서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당신과의 만남, 화해, 증언,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갈망, 새로운 시각, 사회 진보와 선교 노력을 통하여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촉구하신다.<sup>163</sup> 일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선교를 위한 고통의 봉헌일”<sup>164</sup>로 기념하고 있다.

## 연중 시기

### 삼위일체 대축일

157.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거행된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신심이 커지면서, 교황 요한 22세는 1334년에 삼위일체 축일을 모든 라틴 교회로 확대시켰다. 중세기, 특히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심이 개인 신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여러 가지 전례 표현들을 낳았다. 이러한 일들은 일부 신심 행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sup>165</sup>

이신 복되신 삼위일체에 대한 대중 신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신심 행위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참된 형태의 대중 신심은 반드시 하느님, 곧 “전능하신 성부, 독생 성자, 성령”<sup>166</sup>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신비이며,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당신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셨다. 구원 역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시기 위한 역사이다.”<sup>167</sup>

여러 가지 신심 행위는 삼위일체의 특징과 차원을 띤다. 대부분의 신심 행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성호를 긋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마태 28:19 참조)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이며 성령의 성전으로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을 시작한다. 다른 신심 행위들은 성무일도에 있는 기도문과 유사한 기도문을 사용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떤 신심 행위들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축복으로 끝난다. 이러한 신심 행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도는 전형적인 전례 형식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며, 전례에서 가져온 영광송을 보존한다.

158. 이 지도서의 제1부에서 말하였듯이 예배는 인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sup>168</sup>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지향하는 것은 대중 신심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신자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들을 공경하는 모든 신심 행위가 하느님 아버지를 궁극적인 목

163. 갈라 5:16, 22; 선교 교령, 4항; 사목 현장, 26항 참조.

164.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78항, AAS 83(1991), 325면.

165.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4항.

16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항.

167. 같은 곳, 234항.

168. 본문 76-80항 참조.

적으로 하며, 또한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와 하느님께 되돌아가고, 강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자께서는 유일한 중개자이시며(1티모 2,5 참조), 성자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고(요한 14,6 참조), 성령께서는 은총과 성화의 유일한 원천이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성삼위가 배제된 ‘신성’의 개념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59.** 수많은 수도원과 수도회들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서방 국가와 특히 동방 교회에서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께 직접 바치는 신심 행위들은 영광송(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이나 대영광송(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과 더불어, 흔히 성서의 삼성송(Trisagion,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과 전례적 표현을 포함한다(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례의 삼성송은 전례의 찬미가와 성서적 표현에서 영감을 받는다. 미사 중에 부르는 거룩하시다(Sanctus)와 사온 찬미가(Te Deum),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식의 비탄의 노래(Improperia)가 그 예이며,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 6장 3절과 요한 묵시록 4장 8절에서 나온 것이다. 삼성송은 하나의 신심 행위로서, 신자들은 천사들과 한마음으로 성서와 전례에서 따온 찬미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60.**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에 지낸다. 이 대축일은 성찬례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이단의 가르침에 교리와 예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제대의 성체에 초점을 맞춘 열렬한 신심 운동의 정점이다. 이 대축일은 우르바노 4세가 1264년에 모든 라틴

교회로 확대시켰다.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Corpus Christi) 대축일이 제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촉진하였고, 또 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하느님 백성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성체 신심이 발전하도록 고무하였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식은 성찬례에 초점을 맞춘 대중 신심의 중심점이 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개신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붙은 신앙과 문화(예술, 민속학, 문학)가 합세하여 대중 신심 안에 생생하고 의미 있는 성체 신심의 표현들을 발전시켰다.

**161.** 그리스도인 신자들 사이에 매우 깊이 뿌리내린 성체 신심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성체 신심의 최고의 준거는 주님의 파스카이다.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파스카는 부활 축일이고, 성찬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곧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 모든 형태의 성체 신심은 본질적으로 성찬의 희생 제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희생 제사 거행을 준비시키거나, 희생 제사의 본질인 예배의 연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로마 예식서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에 신자들은 이러한 현존이 미사 성체에서 유래되고 성사적 내지 영신적 영성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sup>169</sup>

169.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De Sacra Communione et de Cultu Mysterii Eucharistici Extra Missam), 표준판, 바티칸 인쇄소, 1973, 80항.

**162.**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행렬은 성체 행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성찬례 거행의 연장이다. 미사 중에 축성된 거룩한 제병을 미사 직후에 성당 밖으로 가지고 나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성체께 대한 신앙과 신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도록”<sup>170</sup> 한다.

신자들은 이 행렬의 고유한 가치들을 잘 알고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되신 주님께 대한 신앙을 선포한다.

그러나 행렬을 이끄는 규정들,<sup>171</sup> 특히 거룩한 성체의 존엄과 그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규정들을<sup>172</sup>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길거리와 창문들을 꽃으로 장식한다거나 행렬 동안 성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드리는 등, 행렬에 수반되는 대중 신심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택해져야 하며”,<sup>173</sup> 모든 경쟁적인 형식들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163.** 성체 행렬은 보통 성체 강복으로 끝난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행렬은 특별한 경우에 모든 거행을 장엄 성체 강복으로 끝낸다. 평상시의 사제 강복을 성체 강복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러한 강복을 성체 신심의 독립적인 형식이 아니라, 연장된 예배 행위의 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러므로 전례 규정은 “강복만을 주기 위한 성체 현시는”<sup>174</sup> 금지한다.

### 성체 흡수

**164.** 성체 흡수는 교회 안에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목자들과 신자들에게 적극 권장되는 성체 공경의 한 형식이다. 그 최초의 형태는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Coena Domini) 미사 거행에 이어서 하는 수난 감실 앞의 성체 조배에서 유래한다. 성체 흡수는 주님의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예식과 주님께서 제대의 성체 안에 지속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행위이다. 병자들에게 언제든지 노자성체를 줄 수 있도록 성체와 성혈을 보존하는 행위는 신자들 사이에 감실 앞에서 묵상하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관습을 장려하였다.<sup>175</sup>

실제로 이 흡수례는 “확고부동한 이유 때문에 시작된 것이며, 특히 주님의 실제적 현존을 믿는 신앙이 그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 신자들을 성체께 이끌어 주는 신심은 또한 그들을 파스카 신비에 더욱 완전히 참여하게 하며, 인성을 통하여 당신 몸의 지체들 안에 간단없이 신적 생명을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준다. 신자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가정적 친밀

174.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89항.

175. 비오 12세,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AAS 39(1947), 568-572면; 바오로 6세, 회칙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 AAS 57(1965), 767-772면; 「성체의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49-50항, AAS 59(1967), 566-567면;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5항 참조.

170.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101항. 교회법 944조 참조.

171. 같은 곳, 101-108항 참조.

172. 같은 곳, 101-102항 참조.

173. 같은 곳, 104항.

을 즐기며, 그분 앞에서 자신들과 그들의 온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온 생애를 성부께 봉헌하고 이 기묘한 교환으로 그들의 신앙에 삼덕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열성으로 주님의 기쁨을 거행하며 성부께서 주신 빵을 자주 받아 모시게 되는 것이다.”<sup>176</sup>

**165.** 다양한 형식을 지닐 수 있는 성체 흠숭에서는, 전례와 대중 신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그 한계를 두어 구분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sup>177</sup>

● 간단한 성체 조배: 잠시 그리스도와 만나는 형식으로 실체의 현존에 대한 믿음으로 고무되며, 침묵 기도를 특징으로 한다.

● 전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성광이나 성합에 현시된 성체 흠숭.<sup>178</sup>

● 모든 수도 공동체와 성체 조배회 또는 본당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성체 조배(Quarantore): 보통 성체 신심을 다양하게 표현할 기회가 된다.<sup>179</sup>

신자들에게 성체 흠숭을 하는 동안 성서를 읽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성서야말로 비할 데 없는 기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침묵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장려할 뿐 아니라, 성무일도와 전례 시

기의 성서 말씀에 바탕을 둔 적절한 찬미가와 성가를 부르게 할 수도 있다. 점차적으로 신자들에게 성체 현시 동안에 다른 신심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sup>180</sup> 그리스도와 성모님께서는 긴밀한 관계에 계시므로, 주님의 강생과 구원을 묵상하는 묵주 기도는 언제나 기도의 지향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도와준다.<sup>181</sup>

## 예수 성심

**166.**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뒤 두 번째 주일에 이른 금요일에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낸다. 전례 거행 외에도 예수 성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심 행위들이 있다. 모든 신심 행위 가운데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 단연 가장 널리 퍼진 신심 가운데 하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성서에 비추어 볼 때, ‘예수 성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 그분의 전 존재, 가장 내밀하고 본질적인 그분의 인격을 드러낸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창조되지 않은 지혜, 무한한 사랑, 인간의 구원과 성화의 주역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심’은 그리스도이시며, 강생하신 말씀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본성상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당신 형제들에게 무한한 신적 인간적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시다.

**167.** 교황님들께서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성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자주 언급하셨다.<sup>182</sup>

176.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49-50항.

177. 성체 흠숭과 성체 행렬에 주어지는 대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7항, 54-55면 참조.

178.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82-90항; 교회법 제941조 참조.

179. 교회법 제942조 참조.

180.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62항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변, *Notitiae* 34(1988), 133-134면; 묵주기도에 관해서는 각주 참조.

181. 「마리아 공경」, 46항; 1997년 1월 15일자 경신청사성 서한, *Notitiae* 34(1998), 506-510면; 1996년 3월 8일자 내사원 답서, *Notitiae* 34(1998), 511면 참조.

182. 레오 13세, 성심께 바치는 인류의 봉헌에 관한 회칙 *Annum Sacrum*, 1899.5.25., *Leonis XIII Pontificis Maximi Acta*,

아버지와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요한 10,30 참조)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과 긴밀한 친교를 이루며 당신과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당부하신다. 예수님께서(요한 10,30 참조) 당신 자신을 “은유하고 겸손하신”(마태 11,29) 분으로 드러내신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창에 찢어진 그분을(요한 19,37; 즈가 12,10 참조)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언적 복음적 시선, 곧 창에 찢어진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나타내는 예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요한 19,34 참조) “교회의 놀라운 성사”<sup>183</sup>를 상징한다.

요한 복음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으며(요한 20,20 참조), 토마에게는 당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다고(요한 20,27 참조) 기록한다. 이 사건 역시 예수 성심에 대한 교회의 신심의 시작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68.** 요한 복음서의 본문과 그 외 다른 성서 본문들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승리한 파스카의 어린양으로 제시한다(묵시 5,6 참조). 교부들은 이들 성서 본문을 열심히 성찰하였고, 그것들의 교리적 풍부함을 밝혔다. 교부들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찰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께서는 문이시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찢렸을 때 여러분에게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들어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창에 찢어진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로 여러분은 정화되고 그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sup>184</sup>

**169.**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중세기에 특별히 두드러졌다. 학식과 성덕으로 유명한 많은 성인들이 이 신심을 발전시키고 권장하였다. 예를 들어 베르나르도 성인(†1153년), 보나벤투라 성인(†1274년), 루갈다 성인(†1246년), 마르부르크의 마틸다 성인(†1282년), 헬프타 수도원의 두 성인 수녀 마틸다(†1299년)와 제르트루다(†1302년), 작센의 루돌프(†1380년) 등이 있다. 이들은 예수 성심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원천이시며,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는 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비의 자리, 약속의 땅, 참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170.**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안센주의자들이 하느님의 엄격한 심판을 주장하였을 때에,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었고, 신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성심으로 상징되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1622년)은 예수 성심의 다양한 측면들인 겸손과 은유(마태 11,29 참조),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자신의 삶과 사도직의 모범으로 삼았다. 주님께서(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1690년)에게 당신 성심의 풍성한 자비를 자주 드러내

XIX, Romae: Typographia Vaticana, 1900, 71-80면; 비오 12세, 회칙 「물을 길으리라」(*Haurietis Aquas*), AAS 48(1956), 311-329면; 바오로 6세, 교황 교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Investigabiles Divitias Christi*), 1965, 2, 6., AAS 57(1965), 298-301면; 요한 바오로 2세, 예수 성심께 바친 인류의 봉헌 백주년 담화, 1999, 6, 11.,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999, 6, 12, 참조.

183. 전례 현장, 5항; 성 아우구스티노, 「시편 상해」, 138, 2, CCL 40, 1991년.

184.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Sermo*), 311, 3, PL 38, 1415.

보여 주셨다. 요한 에우데스 성인(†1680년)은 예수 성심에 대한 전례 공경을 촉진하였고, 클로드 라 콜롱비에르 성인(†1682년)과 요한 보스코 성인(†1888년)과 다른 성인들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열렬한 촉진자였다.

**171.**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수도 없이 많다. 일부는 사도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았고 흔히 장려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개인적 봉헌: 교황 비오 11세는 이를 “확실히 예수 성심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신심 실천”<sup>185</sup>이라고 묘사하였다.

- 예수 성심께 드리는 가정 봉헌: 거룩한 혼인성사를 통하여 이미 일치의 신비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가정은 그리스도께 봉헌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게 한다.<sup>186</sup>

- 예수 성심 호칭 기도: 1891년에 온 교회에 승인되었으며, 성격상 명백히 성서적이고 여러 가지 대사가 첨부되어 왔다.

- 보속 행위인 기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선을 기억하며 예수 성심께 갖가지 모양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자비를 청한다.<sup>187</sup>

- 예수님께서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에서 비롯된 매달 첫 금요일의 신심 행위: 신자들 사이에 성사적 친교가 매우 드물었던 때에, 첫 금요일 신심은 고해성사와 성찬례를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이타지하였다. 오늘

날 첫 금요일 신심은 올바르게 실천된다 하더라도 바라는 영적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침으로써 이 신심 행위가 가볍고 경솔한 것이 되지 않게 하며, 신자들이 삶 안에서 올바르게 복음에 투신하도록 적극적인 신앙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신자들에게 “근원적인 축일”<sup>188</sup>인 주일의 절대적인 우위성을 상기시킴으로써, 거룩한 미사 거행에 신자들이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72.**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신앙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신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적 표현으로서, 회개와 보속, 사랑과 감사,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활동에 대한 사도적 투신과 헌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교황청과 교구장 주교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신심을 권장하고 그 쇄신을 촉구한다. 이러한 쇄신의 범위는 이 신심의 언어학적 성화상학적 표현, 성서학적 기원, 이 신심이 신앙의 위대한 신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식, 이 신심의 핵심 내용인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우위성에 대한 확인 등이다.

**173.** 대중 신심은 어느 한 신심을 그것의 성화상학적 표현과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에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하는 성화상적 표현들 때문에 때때로, 그 신심의 신학적 토대나 역사적 구원적 내용과는 상관없이, 신심의 대상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때로는 이러한 일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에도 생길 수 있다. 아마도 신심의 확고한 신학적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신자들이 구세주의 성심의 신비에 접근하는 데에 힘이 되어 주

185. 비오 11세, 회칙 *Miserentissimus Redemptor*, AAS 20(1928), 167면.

186.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1항, 50면 참조.

187. 같은 곳, 3항, 51-53면 참조.

188. 전례 현장, 106항.

지 못하는 일부 지나치게 감상적인 성화상들이 그러하다.

최근 들어 그리스도의 지고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순간의 예수 성심을 나타내는 성화상들이 발전하였다. 예수 성심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요한 19,34 참조).

###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174.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을 지낸다. 이렇게 연이어 지내는 것은 그 자체가 이 두 날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전례적 표지이다. 예수 성심의 신비(mysterium)는 예수님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제자이시기도 한 성모님의 성심에 투사되고 반사된다. 예수 성심 대축일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그 원천인 예수님의 성심에 환원시켜 종합적으로 기념하는 것처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도 강생에서 죽음과 부활, 성령을 보내 주심에 이르기까지 성모님과 성자의 구원 활동이 맺고 있는 복잡하고 근원적인 관계를 기념한다.

1917년의 파티마 발현에 이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신심이 매우 널리 퍼져 나갔다. 교황 비오 12세는 파티마 발현 25주년(1942년)에 교회와 인류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였고, 이 기념일을 교회 전체로 확대시켰다.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서도, 대중 신심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신심은 예수 성심 신심과 유사하다. 개인과 가정, 수도 공동체와 국가의 봉헌,<sup>189)</sup> 기도를 통한 죄의 보속, 금욕, 자선 행위,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189.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드리는 여러 가지 봉헌 가운데서, 가장

부탁하신 5개월간의 첫 토요일 신심 등이 그것이다.

5개월 동안 첫 토요일에 영성체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9개월간의 첫 금요일 봉헌 때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sup>190)</sup> 성찬례의 틀 안에서 영성체를 함으로써 세속적인 요소들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삶에 감화를 받은 이러한 신심 행위는 성찬례를 통하여 거행되는 파스카의 신비를 강하게 체험하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 지극히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

175. 구약성서에서는 비유의 단계에 있다가 신약성서에 와서는 완전하게 성취된 단계로 들어선 성서의 계시는 피를 생명과 죽음, 출애굽과 파스카, 사체직과 희생 제사, 구원과 계약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시킨다.

피와 그 피의 구원적 의미에 관한 구약성서의 비유들은 그리스도, 특히 그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의 신비는 신앙과 우리 구원의 핵심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의 신비는 다음 사항을 상기시킨다.

● 말씀의 강생(요한 1,14 참조)과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시므로써 구약의 백성 가운데 한 분이 되심(루가 2,21 참조).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비오 12세께서 1942년 10월 31일에 이 세상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신 것이다(AAS 34(1942), 318면 참조).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4년 3월 25일에 교회의 주교들과 친교 안에서 다시 한 번 이 세상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셨다(*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VII/1(1984),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4, 774-779면 참조).

190. 본문 171항 참조.

● 함축성이 풍부한 성서의 어린양의 표상: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오신다”(요한 1, 29). 이 구절에는 이사가야 말한 인류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이사 53, 4-5 참조). 이 “과월절 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한다(사도 8, 31-35; 1고린 5, 7; 1베드 1, 18-20 참조).

● 예수님께서 제베대오의 아들들에게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며, 당신의 임박한 구원의 죽음을 암시하며 말씀하셨던 ‘수난의 잔’과(마태 20, 22; 마르 10, 38 참조)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마셨던(루가 22, 44 참조) 올리브 산의 고난의 잔(루가 22, 42-43 참조).

● 포도주의 형상 아래, 주님께서 죄의 보속을 위해 흘리신 새로운 계약의 피를 담고 있는 성찬의 잔: 이 잔은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하며(1고린 11, 25 참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요한 6, 54)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잔이다.

● 주님의 죽음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셨기 때문이다(골로 1, 20 참조).

● 희생된 어린양을 찢은 창: 어린양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요한 19, 34 참조). 이는 성취된 구원의 표지이자 교회의 성사 생활의 표지—피와 물, 세례와 성찬례—이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교회를 상징한다.<sup>191)</sup>

#### 176. 구세주와 관련된 그리스도론적인 칭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의 신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당신의 가장 고귀한 피로 우리를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1베드 1, 19 참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1요한 1, 7).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기”(히브 9, 12) 때문에 ‘내리는 모든 복’의 대사제이시고,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묵시 6, 9) 순교자들의 피를 증언하는 충실한 증인(묵시 6, 10 참조)이시며, 하느님으로서 당신의 선흥책 피로 장식된 “십자가 나무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교회의 신랑이시고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며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분의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 희게 만들었다(묵시 7, 14; 에페 5, 25-27 참조).

177.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기념제를 이 예배 거행의 중심 자리에 두었다. 곧 교회는 성찬의 모임 중간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의 잔”(1고린 10, 16; 시편 115, 4[116, 3] 참조)을 들어 올리고, 전례 주년 내내 신자들에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1고린 10, 16)으로 제시한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기념함으로써, 전례 주년 전체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피에 대한 예배와 기념으로 충만하게 한다(1베드 1, 19 참조). 따라서 교회는 성탄 시기의 저녁기도에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노래한다. “주님의 값진 피로 구원된 우리, 주님의 성탄 축일 기뻐들 하며, 드높은 가락으로 목청 돋우어, 새로운 노래 불러 찬미드리세”(Nos quoque, qui sancto tuo redempti sumus sanguine, ob diem natalis tui hymnum novum concinimus).<sup>192)</sup> 파스카 삼일에

191. 전례 헌장, 5항 참조.

192. 『성무일도』, 성탄 시기 I, 저녁기도, 찬미가 “만민의 구세주신 우리 주 예수”

도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피가 지니는 구원의 의미와 효과를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교회는 성금요일의 십자가 경배에서 이러한 찬미가를 부른다. “여린 몸에 피가 흘러 시냇물을 이루더니, 땅과 바다 우주 창공, 깨끗하게 씻었도다”(Mite corpus perforatur, sanguis unde profluit; terra, pontus, astra, mundus quo lavantur flumine).<sup>193</sup> 부활 주일에도 이렇게 노래한다. “십자가 제단 위에 바쳐진 성체,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먹으며, 진붉은 주님 성혈 받아 마시고, 하느님 생명으로 살아가리다”(Cuius corpus sanctissimum in ara crucis torridum, sed et cruorem roesum gustando, Deo vivimus).<sup>194</sup>

일부 지역과 특정 축일표에서는 지극히 고귀한 그리스도의 성혈 축일을 아직도 7월 1일에 지낸다. 이 축일은 구세주의 다양한 호칭을 상기시킨다.

**178.** 그리스도의 성혈 공경은 전례에서 대중 신심으로 옮겨 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신심 실천을 통하여 널리 확산되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다.

● 지극히 고귀한 그리스도의 성혈 묵주기도: 할례 때에 흘린 피, 계썰마니 등산에서 흘린 피, 체찍질을 당하시며 흘린 피, 가시관에 눌러 흘린 피, 해골산에 오르시며 흘린 피, 창에 찔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 등 복음서에 함축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언급된 일곱 번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성서 묵상과 신심 기도를 번갈아 한다.

193. 『로마 미사 전례서』, 주님 수난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찬미가 “성실하다 십자 나무”

194. 『성무일도』, 부활 시기 I, 저녁기도, 찬미가 “어린 양 만찬 상에 초대된 우리.” 다른 찬미가를 부를 수도 있다(“영원한 임금이신 주님이시여”).

● 그리스도의 성혈 기도: 일련의 성서 말씀과 구절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의 여정을 분명하게 더듬어 본다. 오늘날의 형식은 1960년 2월 24일에 교황 요한 23세 복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sup>195</sup>

● 지극히 고귀한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곧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흠숭하고 찬미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며,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봉헌하는 것이다.

● 피의 길 (Via Sanguinis): 최근에 시작된 신심 실천으로, 인류학적 문화적으로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여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행해진다. 이 신심 실천에서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에서처럼 장소를 옮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피를 흘리신 여러 순간들을 되새긴다.

**179.**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지극히 고귀한 성혈을 공경하며 성혈이 지닌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갖가지 성화상들이 제작되어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한 성화상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새로운 계약의 피가 담겨 있는 성작을 묘사한 성화상들이며,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못박히시어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구원의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성화상들이다. 때때로 지상 위에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성혈은 지상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는 은총의 물결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화상들에는 때때로 저마다 그리스도의 오상에서 흘러나오는 성혈을 모으기 위한 잔을 들고 있는 다섯 천사가 나타난다. 때때로 이 일을 맡은 인물은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를 나타내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195. AAS 52(1960), 412-413면;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22항, 68면.

### 성모 승천

180. 성모 승천 대축일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중 시기에서 단연 돋보인다. 이 대축일은 예부터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해 온 날로서, 다음과 같은 신앙의 여러 진리들을 의미하며 종합한다. 곧 하늘로 올라가신 성모님께서는,

- “구원의 뛰어난 열매”<sup>196</sup> 이시며,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의 폭과 효능을 훌륭하게 증언하시는 분이시다(구원론적 의미).

- 그리스도 신비체의 구성원들이 미래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보장하시는 분이시다(그리스도론적 측면).

- 전 인류에게 “그 바라던 종국적인 희망이 실현됨을 보여 주는 위로의 증거이시며,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히브 2, 14; 갈라 4, 49 참조) 그리스도께서 형제로 삼아 주신 모든 이가 우리에게 될 충분한 영광”<sup>197</sup> 이시다(인간학적 측면).

- 교회가 “자신이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열망하는 모습”<sup>198</sup>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종말론적 성화상이시다(교회론적 측면).

- 당신 약속에 충실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한 보증이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에 충실하게 협력하신 당신의 겸손한 여종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예비해 두신다. 이는 성모님의 흠 없는 영혼과 순결한 육체가 충분하고 복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시리라는 것을 예정해 준다(마리아론적 측면).<sup>199</sup>

196. 전례 현장, 103항.

197. 「마리아 공경」, 6항.

198. 전례 현장, 103항.

199. 「마리아 공경」, 6항.

181.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은 대중 신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이 대축일은 성모님의 인격과 동일시되어, 간단히 ‘성모님의 날’이라고도 불리며, 스페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임마쿨라타’(Immacolata)라고 지칭된다.

게르만족 국가들에서는 8월 15일에 식물을 축복하는 관습이 있다. 로마 전례력에 받아들여진 이 관습은<sup>200</sup>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식과 신앙을 참되게 복음화한 명백한 예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으며,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났다”(창세 1, 12). 따라서 인간은 이제 하느님께 의지하여, 이전에는 주술적인 예식으로 얻었던 것을 얻고 독초의 피해를 막으며 약초의 효능을 활용한다.

이러한 옛날의 용도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관련지어졌다.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라벤더, 백합과 같이 성모님께 적용된 성서의 표상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덕성이 뛰어나신 성모님을 향기로운 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장차 예수님이라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햇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82. 교회는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요한 17, 21)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200. 교황 비오 12세의 권위로 편찬 발행된 『대 교황 바오로 5세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Editio iuxta Typicam, Romae: Desclée, 1952 444-449면 참조.

기억하며,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린다.<sup>201)</sup>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여러 가지 기원 미사 가운데 ‘교회 일치를 위한’ 세 가지 미사가 들어 있다. 성무일도의 청원기도에도 같은 지향이 들어 있다.<sup>202)</sup>

대중 신심의 표현들은 “갈라진 형제들”<sup>203)</sup>의 감정을 존중하여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sup>204)</sup> “이러한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모든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다.”<sup>205)</sup> 다른 교회나 교회 공동체들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가톨릭 신자들의 만남은 하느님께 공동의 염원을 바치고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고자, 그리스도인 일치와 은총을 위하여 공동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기회이다. “공동 기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이나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의 주간에 권장된다.”<sup>206)</sup>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에도 여러 가지 대사가 주어진다.<sup>207)</sup>

201.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평화의 인사 전에 드리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참조.

202. 제1주간 주일과 월요일, 제3주간 수요일 저녁기도의 청원기도; 제4주간 수요일 아침기도의 청원기도.

20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8항.

204. 「마리아 공경」, 32-33항 참조.

205. 일치 교령, 8항.

206.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110항, AAS 85(1993), 1084면.

207.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11항, 58면 참조.

## 제5장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

### 몇 가지 원칙들

183.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대중 신심은 중요하고 보편적인 교회 현상이다. 이러한 신심은 다양하게 표현되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믿음과 사랑에서, 또한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맡기신 구원 사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그 동기가 매우 심오하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우리 주님 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또한 은총의 질서 안에서 인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사실, “신자들은 성자와 성모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유대를 쉽게 이해한다. 그들은 성자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그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그들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자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흠 없는 성덕을 직관으로 알게 되며, 성모님을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후로 공경하면서 자애로우신 어머니께서 그들을 위하여 전구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모님의 보호에 굳게 의지한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은 특별히 성모님을 더욱 가깝게 느낀다. 그들은 성모님께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하셨으며, 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은유함과 인내를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성모님과 함께 성자의 부활을 기뻐한다. 신자들은 성모 축일을 기쁘게 경축하며, 성모 순례지를 방문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성가를 부르고, 성모님께 봉헌물을